



기술금융 올해 3.4조 원, '28년까지 16.6조 원 공급

- CVC펀드 2.4조 원 산업기술혁신펀드 4천억 원 조성, 5,400억 원 융자형 연구개발(R&D) 신설
-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에서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중소기업의 도전적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4년 총 3.4조원, ’28년까지 5년간 총 16.6조 원 규모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산업부는 4월 4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부, 혁신기업, 벤처투자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술금융 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관 합동 CVC 펀드를 ‘24년 총 2.4조 원 규모로 조성하여 혁신형 창업기업 등에 투자하고, 재무적 투자에 더해 대기업의 사업·마케팅 역량과 혁신 인프라 등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촉진한다.

둘째, ‘24년 산업기술혁신펀드를 4,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여 방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무탄소 에너지(CFE)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민간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 및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기술혁신펀드 최초로 조성되는 첨단민군협력 펀드(36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날 참석한 방산기업들이 추가 출자, 기업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산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셋째, 개발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초저금리(연 0.5~1.84% 수준) 융자형 R&D를 5,4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기부와 협업하여 기술보증 수수료를 0.5%p 인하하는 등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연계하여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도 ’24년 총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올해 신설된 융자형 연구개발(R&D) 사업을 취급하는 13개 은행이 참여하는 융자형 R&D협약식과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이 개최되었으며,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어센도벤처스(공동)가 운용사로 선정된 CVC 펀드 투자 협약식도 이루어졌다. 특히, ’23년 산업기술혁신펀드 운용사의 하나로 선정된 이스라엘 “OurCrowd”사의 Ely Razin 투자총괄 이사도 참석하여 400억원 이상의 해외자본을 한국 기술혁신펀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상품화까지 겪게 되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VC 펀드, 융자형 연구개발(R&D),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 기술금융의 유형과 공급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번 기술금융 공급은 방산업계, 외국 벤처캐피탈, 국내 CVC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펀드 공동출자자로 참여하여 최근 다소 위축된 벤처 투자를 다시 활성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4540)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4-203-4543)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개발과	책임자	과 장	박용민 (044-203-4530)
		담당자	사무관	윤현배 (044-203-4531)



참고1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민간주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금 '24년 약 **3.4조원** 공급

☞ 5년간('24~'28) 총 **16.6조원** 기술금융 공급 확대로 기업 활력 제고

① CVC를 통한 개방형 혁신 촉진

- (CVC 펀드) '24년 민-관 합동 총 2.4조원 「CVC 펀드」 조성
* 산업기술혁신펀드 1천억원(정부출자 400억) + 민간출자 2.3조원
- (개방형 혁신 지원) CVC 얼라이언스 전용 IR 확대(연 4회), CVC 투자 기업 수출기업화(1:1 상담회 등) 및 스타트업의 해외 CVC 투자 유치 지원 등

②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 7개 분야 총 4천억원 규모 「산업기술혁신 펀드」 조성(母펀드 1,900억원 출자)
 - (첨단산업 육성) 바이오, AI기반 자율제조, 첨단 민군협력*, 무탄소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에 투자(1,640억원)
* 방산기업 3社(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참여
 - (산업생태계 강화) CVC 스케일업, 지역산업, 중견기업 등 중소·중견기업 혁신 역량 강화에 투자(2,360억원)

③ 융자R&D 사업 신설

- (첨단산업융자)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총 3,900억원('24~'27년) 초저금리 자금 융자 지원
* '24년 900억원, 기업별 20억원 내외 저리지원(1.84%(변동)), 13개 취급은행 참여
- (이차보전) 고금리 상황에서 R&D 계속 과제 사업비 감액으로 애로사항을 겪는 기업에 대해 초저금리 이차보전* 지원
* 중소·중견기업 대출원금 4,500억원 기준으로 시중금리 최대 5.5%p 보전
※ 융자 대상 기업의 대출심사 시 기술평가보증심사를 통한 특례보증(보증비용 보증료 우대 등) 연계 지원

④ 시장친화적 R&D 확대

- (투자연계 R&D 확대) 투자 유치 성공기업에 정부가 매칭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 투자 확충 및 도전적 투자연계 추가 R&D 기획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108억원) 및 소부장 이중기술융합형(1,600억원) '24년 총 1,700억원
- (시장성 검증 강화) R&D 과제 선정·평가에 VC 등 시장산업전문가 참여 확대

참고2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 개요

1. 행사 개요

- 목 적 : 민간의 기술투자 확대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 공급방안 및 주요 주체(기업, 금융·투자·정책기관 등)간 상호 협력방안 논의
- 일 시 : '24.4.4.(목) 14:00 ~ 15:50
- 장 소 : 롯데호텔(소공동)
-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벤처투자사 ▲은행 ▲전문기관 등
- *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대우전자부품, 엔바이오텍 등 8개사
(벤처투자사) CVC 포스코기술투자, SGC파트너스, 어센도벤처스, 해외VC아워크라우드
(은행) 산업, 기업, 신한, 하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행사구성 : 협약식*(총 3회) 및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간담회) 개최
- * ①융자형 R&D 지원협약식 ②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협약식 ③CVC 펀드 투자협약식

2. 세부 일정(안)

	시 간		주요내용	비고
1부 (협약식)	14:00~14:01	1'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1~14:06	5'	· 모두발언	장관
	14:06~14:26	20'	①융자형 R&D 지원협약식('24, 5,400억원)	
			②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협약식('24, 4,000억원)	
			③CVC 펀드 투자협약식(총 1,050억원)	
	14:26~14:30	4'	· 장내 정리 및 이동	
2부 (간담회)	14:30~14:34	4'	· 민간주도 기술금융 지원방안 발표	< 부대행사 >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
	14:34~15:49	75'	· 기술금융 투자확대 전략회의 산업부, 기업(8), 은행(3), VC(4), 기관(6) 등	
	15:49~15:50	1'	· 폐 회	